향기로운 예물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정. 주일. 절기 헌금(이름/헌금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성탄)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김윤주 최유경 강영성(신화순) 김춘화 박종삼(이명원) 석형기(이희순B)
송부현(김영진) 오영순 유호근(손명화) 윤병용(백남실) 이난수(방원식) 이상희 장명원 정삼례
채만기(장은주) 최순재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신화순) 김춘화 박권제(송영숙) 방현욱(신영신) 백남실(윤병용) 손명화(유호근)
송부현(김영진) 장명원 조규례 최순재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례 김경염(손정아) 김정연B 김정자 김중익(박애순) 김춘화 김춘희 김태이(송대향)
박순자(이동수) 박승현 박종삼(이명원) 방현욱(신영신) 백남실(윤병용) 백종임 서재희(김현구)
석형기(이희순B) 송순량(김원경) 신화순(강영성) 이미자 이종문 전계자 전순봉 채명엽 최성현 최순재
최정규(김미영) 무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준 김아이린 김이안 김준구 민옥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승현 박영식
박준홍 서로이 서로하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율 이상이 이상희 이소은 이승예 이아론
임윤정 정서연 정양학 주성탁 최대현 최봉순 최선미 최효자 하세련 홍유정 홍은민 홍준민 무명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38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느헤미야 11장 1 ~ 9절		
월요일	느헤미야 11장 10 ~ 21절	목요일	느헤미야 12장 22 ~ 30절
화요일	느헤미야 11장 22 ~ 36절	금요일	느헤미야 12장 31 ~ 47절
수요일	느헤미야 12장 1 ~ 21절	토요일	느헤미야 13장 1 ~ 9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욱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걸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최유경	
찬양대	지 휘 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 온 :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반주자 피아노	지예빈 김민지 김미희 심혜윤 최선미 이상희	
	반주자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반주자 플룻	김민지	
	솔 리 스 트	이수경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옥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이 집 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맥 시 코 : 김흥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4.09.15.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라

룻기 1장 1~18절 설교: 이진우 목사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전통으로 내려오고 지켜오는 추석, 한가위는 지금은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이며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풍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좋은 전통이 깨어지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악습이라면 뜯어고치고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전통은 보존하고 지키는 것 또한 이 세대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전 카톨릭 교황이 아시아 순방을 하고 마지막 방문지인 싱가폴을 떠나기전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에게 도달하는 길"이며, "종교는 신에게 닿기 위한 서로 다른 언어와도 같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다원주의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기 집안의 종교적인 전통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결과 가족들이 손 쓸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참교육, 인간 중심의 교육이라 말하며 학교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말하며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 것과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강요받지 말고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오늘 룻과 나오미의 경험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6~17절은 충성, 헌신, 그리고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한 것은 그녀가 따르는 전통이나 집, 가족, 종교를 떠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은 나오미 때문에 유대로 갔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개인적인 요인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어 신앙이 진심이고, 확실하며,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 신앙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Ⅰ. 적극적인 교제가 있을 때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A. 믿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리차드 스웨인은 '하나님은 누구이며 어디 계신가?' 라는 책에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은 그의 어머니의 얼굴에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기대어 그녀가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면서 어머니의 얼굴은 안정 되고 부드러워졌으며 온화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B.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전염력이 있는 진실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런 능력의 모습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Ⅱ. 긍휼함이 나타날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A. **긍휼은 사람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추상적으로 보통 말하는데 진실한 긍휼은 개인들을 돌보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B. **긍휼은 일치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단지 말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한 일본인 소녀가 미국 서부의 한 수용소에서 석방되어 일자리를 찾으려 시카고로 갔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얻기도 전에 그녀는 맹장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병에 걸린 이방인이며 지금 일본과의 전쟁 기간중에 적국인 일본 사람이었고, 직업도 없었고, 미래도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그녀의 소식을 듣고 젊은이들이 찾아와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신자로 자라난 그 일본인 소녀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C.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신앙은 우리의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작은 소자에게 실천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휼의 모습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하여 인내하고 참고 바라며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Ⅲ. 절대적인 선택만이 주어질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A. **선택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룻이 요단강가에 섰을 때에 그녀는 이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B. **선택은 깜짝 놀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깜짝 놀랄 결과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택은 계속해서 다른 결정을 하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C. **선택은 예상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유다를 떠났을 때에 그녀는 룻을 만나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이 결정은 그리스도를 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인 룻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오미의 신앙에서 본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일관성과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민족의 좋은 전통을 지키는 추석이 될 뿐 아니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며 전하는 복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50 - 38 2024. 09. 22.

대한예수교장로회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로마서 15장 13절)
목표: 1. 진리 파수 2. 천국 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 진 우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